

# 코로나 직격탄에 中企 5월 경기전망 ‘역대 최저’

5개월 연속 하락...中企 제조업 경기 전망 금융위기 이후 최저

최근 3년 비교...제조업 전반하락·비제조업 평균치 미달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 위축, 수출 둔화,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의 5월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5개월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13일부터 20일까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를 실시한 결과 5월 SBHI가 60.0을 기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월보다 0.6포인트(p), 전년 동월 대비로는 27.6p 하락한 것이다. 2014년 2월 전산업 통계를 시작한 이후 역대 최저 기록이다. 제조업의 5월 경기 전망 역시 전월보다 6.8p 하락한 64.8로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 2월(60.0) 이후 가장 낮았다. 반면 비제조업

은 전월보다 2.5p 반등한 57.5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중 식료품(68.9→74.2), 비금속광물제품(71.5→75.3), 음료(85.7→89.1) 등 4개 업종에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88.4→71.6), 자동차및트레일러(78.1→62.0), 1차금속(79.0→64.3) 등

17개 업종에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비제조업에서는 전월 대비 건설업(72.0→72.9), 서비스업(51.5→54.3)은 전월대비 각각 0.9p, 2.8p 상승했다. 특히 △숙박및음식점업(30.1→33.5)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43.4→58.0)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58.5→66.6) 등 6개 업종에서 상승했다. 반면 △운수업(58.0→52.9)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73.4→69.9) △부동산업및임대업(67.4→65.2) 등 나머지 4개 업종에서 하락세가 나타났다.

전체 산업 항목별 전망에서는 △내수판매(60.9→59.1) △영업이익(59.0→57.7) △자금사정(59.0→58.4) 전망은 전월대비 소폭 하락했고, △수출(72.6→51.1) 전망은 하락폭이 두드러졌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수준전망(101.9→104.2) 역시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 3년 동안 동월 SBHI 평균치를 비교하면 제조업은 경기전반, 생산, 내수, 수출, 영업이익, 자금사정, 원자재 전망뿐만 아니라, 역계열인 설비·재고·고용전망 모두 이전 3년 평균치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비제조업에서도 모

든 항목에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들의 올 4월 주요 예로 요인을 묻는 항목(복수응답)에서는 내수부진(77.1%)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38.1%) △업체 간 과당경쟁(36.7%) △자금조달 곤란(25.4%) △판매대금 회수지연(25.1%) 등의 순이었다. 올 3월 평균기동률을 조사한 결과 69.8%로 전월에 비하면 0.2%p, 전년 동월 대비로는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인호 기자

## 전국 음식점 3월 매출, 1월比 34% 급감

정부 발표 대책에 대한 만족도 5점에 2.26점

정부, 코로나19 지원책 쏟아냈지만 ‘만족도’ 5점에 2.26점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전국 음식점의 3월 일평균 매출이 1월보다 평균 34%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첫째 주 감소 폭(66%)보다 반등했지만 여전히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피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가 연일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업계 반응은 뜨뜻미지근하다. 음식점 자영업자들은 정부 지원책에 대해 5점 만점에 절반 수준인 2.26점을 줬다. 특히 정부의 지원 대책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자영업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대책에 대한 인지도는 경영안정자금 86.3%, 긴급재난지원금 52.4%, 국세 세제 47.9%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은 자영업자는 경영안정자금 12.7%, 긴급재난지원금 5.3%, 국세 세제 2.9%에 머물렀다.

김삼희 외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메르스 당시와 비교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매출 피해액은 66%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한 것이라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 사태가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정부 지원 대책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과 수혜 비율에 차이가 나는 점에 대해서는 “3월부터 지원이 본격화했기 때문에 4월 조사에서는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의식업중앙회 한국의식산업연구원은 지난 6일부터 닷새간 ‘외식업계 코로나19 영향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해 코로나19가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 1월과 3월을 비교한 결과, 국내 음식점 일평균 고객 수가 평균 34% 감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매출 감소 폭은 3월 첫째 주 평균 66%까지 내려갔다가 3월 말 34%대로 회복했지만, 여전히 메르스 당시 피해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봉우 기자

## 가구당 최대 300만원 근로장려금 8월에 앞당겨 지급한다



이청룡 국세청 소득지원국장이 27일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 기자실에서 ‘568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자동신청된 203만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는 전화·손택스·팩스·우편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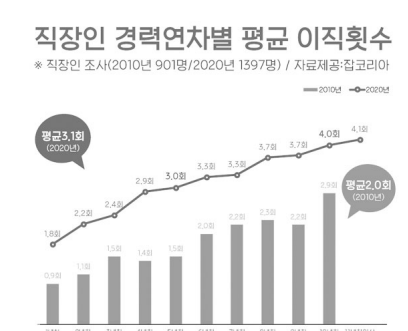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시기가 8월로 앞당겨졌다. 국세청은 27일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했다고 밝

혔다. 568만가구 중 2019년 상·하반기 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인 10월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장려금 예상규모는 3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의 경우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6일 지급한 바 있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 6000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인 7월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반기 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하는 것으로,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이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비대면 방식으로 확대했다.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 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이밖에 우편·팩스, ARS전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등을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국세청은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 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청기간은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6월2일~12월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장려금도 10월 이후에나 받을 수 있다. 또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직장인 10명 중 9명 ‘이직’...1년차 77.1%



미만의 사회초년생 시절 이직 경험자 비율이 90%를 넘어섰는데 이는 직장생활을 시작한 후 본인에게 맞는 직장 및 직업을 찾기 위해 이직을 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잡코리아는 설명했다. 직장인들이 이직을 하는 이유는 ‘낮은 연봉’(35.4%)이 1위에 꼽혔다. 이어 △적성에 맞지 않는 업무때문(30.5%) △개인의 발전·경력 관리를 위해(29.2%) △상사에 대한 불만이나 불화때문(24.8%) △복지제도에 대한 불만(18.7%) 등의 순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9명은 회사를 옮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경력 1년차 신입사원의 이직률은 77.1%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잡코리아가 신입사원부터 10년차 이상 경력의 직장인 총 1397명을 대상으로 ‘경력 연차별 이직 경험’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90.7%가 ‘이직을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10년 같은 조사를 실시했을 당시에 비해 14.8%p 증가한 수준이다. 특히 경력 1년차 신입사원 중 이직 경험자는 77.1%로 10명 중 7명 이상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0년 같은 조사 결과(37.7%)에 비해 39.4%p 증가한 수준이다. 신입사원 중 이직 경험자 비율이 10년 전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2년차 직장인 중에선 84.6%가 이직을 경험했고, 3년차 직장인 중 92.5%가 회사를 옮겼다. 특히 직장생활을 시작한 지 3년

전체 직장인의 이직 횟수는 평균 3.1회로 10년 전 같은 조사 결과(2.0회)에 비해 1.1회 늘었다. 경력 1년차 신입사원의 평균 이직횟수는 1.8회, 경력 5년차 직장인의 경우 3.0회로 10년 전보다 각각 2배 가량 늘었다. 또 직장인들의 평균 이직횟수는 5년 단위로 1회씩 증가했다. 경력 1년차 직장인의 이직 횟수는 평균 1.8회로 집계됐고, 2년차는 평균 2.2회, 3년차는 평균 2.4회로 나타났다. 이어 4년차의 경우 평균 2.9회로 증가했으며 5년차에는 평균 3.0회로 1년차에 비해 1.2회 증가했다. 또 6년차 평균 3.3회, 7년차 3.3회, 8년차 3.7회, 9년차 3.7회에 이어 경력 10년차 직장인의 이직횟수가 평균 4.0년으로 5년차에 비해 1회 더 증가했다.



이마트 미니언즈 콜라보 기획전 27일 오전 이마트 성수점에서 모델들이 이마트와 미니언즈가 콜라보한 미니언즈 기획 상품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마트는 5월 한달 간 이마트와 미니언즈의 시그니처 컬러인 노란색으로 매장을 물들이고 미니언즈 기획 상품 총 30여종을 할인 판매한다.

## 정용진, 백종원 요청에 ‘못난이 고구마’ 구매 이어 수제 ‘맛탕’ SNS에 “전식구 맛탕 먹임”...해남 ‘못난이 고구마’ 450톤 할인 판매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27일 순수 ‘고구마 맛탕’을 만들어 식구들과 먹은 사연을 전했다. 정 부회장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고구마 맛탕 요리 사진을 올린 뒤 “맛탕 만들어 전식구 먹임”이라고 글을 달았다. 해당 게시물에는 현재 120여개의 댓글과 5600여개의 ‘좋아요’가 달리는 등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 부회장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요청을 받고 전라남도 해남 농가의 ‘못난이 고구마’ 450톤을 사들여 키다리 아저

씨 별명을 얻었다. 지난해 12월에는 강릉 농가의 ‘못난이 감자’ 30톤을 사들여 이를 만어 완판한 바 있다. ‘못난이 고구마’는 23일부터 이마트 SSG닷컴 등을 통해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됐다. 특히 지난 24일 신세계TV쇼핑에서는 고구마 하루 판매분(65톤)을 넘어 90톤 분량이 팔리는 등 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정용진X백종원 매직’은 지난해 12월 ‘못난이 감자 판매 과정에서 주목받았다.

오유나 기자

## 사회초년생 평균

### 임금 200만원 달해

20대 초반 평균 임금이 2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졸의 경우 고졸보다 평균 임금이 20만원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2020년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2018년 5인 이상 사업체에 근무하는 20~24세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99만8000원으로 전년 185만5000원보다 14만4000원(7.7%) 증가했다. 이는 2011년 평균 임금이 10.4% 증가한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6.4%로 2001년 8월 16.6%를 기록한 이후 17년 만에 최고인상률을 기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남자가 여자보다 임금 수준이 평균 약 14만원 높았으며 대졸이상은 고졸과 전문대졸보다 약 20만원 높게 나타났다. 대졸과 고졸의 임금격차는 2017년 25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줄었다. 25~29세 상용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46만6000원으로 전년 235만2000원보다 11만4000원(4.8%) 증가했다. 20~29세 청년취업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374만7000명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 보면 20대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가 28%로 가장 많았으며 사무종사자가 22.7%, 서비스 종사자 16%로 뒤를 이었다. 부모세대인 50대 취업자의 경우 단순 노무 종사자가 14.5%로 가장 많다.